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포트폴리오사 KFC코리아 통해 타코벨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KFC코리아, Yum! Brands의 타코벨 국내 매장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배포일: 2025년 3월 27일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이하 “오케스트라”)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KFC코리아는 타코벨의 글로벌 소유주인 Yum! Brands(이하 “Yum”)와 한국 내 타코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KFC코리아는 국내 타코벨 매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확보했으며, 기존 운영 업체와 함께 복수 프랜차이즈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FC코리아는 향후 기존 사업자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국내 타코벨 브랜드의 독점 운영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오케스트라와의 협력 기반 하에 타코벨 브랜드의 국내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6번째 직영 매장 오픈 이후에는 가맹사업(sub-franchising)이 가능해져, 빠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가맹점 확대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타코벨은 글로벌 멕시코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브랜드로, 2014년 1호점을 개점한 이후 현재 전국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멕시코풍 요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KFC코리아는 성공적인 국내 QSR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및 Yu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타코벨 브랜드의 한국 시장 내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KFC코리아 신호상 대표는 “국내에서 멕시코 음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야말로 타코벨만의 차별화된 멕시코 메뉴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최적의 시점”이라며, “오케스트라PE가 KFC코리아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처럼, 타코벨 역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수 KFC코리아 타코벨 사업부 총괄 매니저는 “KFC코리아는 오케스트라 및 Yum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타코벨 또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teequity.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KFC코리아 개요

KFC 코리아는 1984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치킨/버거 전문가로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겠다는 열정으로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매일 신선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kfckore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코벨 개요

타코벨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멕시코 퀵서비스레스토랑 브랜드로, Yum! Brands 산하의 핵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멕시코 메뉴와 개성 있는 브랜드 감성으로 타코, 부리토, 퀘사디아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